

팩토리팀 울산항만 견학 및 하역사 인터뷰

1. 하역사 인터뷰 내용

- 화물 분실 시 책임과 손해는 하역사가 진다.
- 차량의 선적은 늦게 수출되는 화물이 안쪽으로 실린다.
- 하역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사용 중인 하역 Form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다. 현재 직접 도면을 그리고 있다.
- 컨테이너는 전세계적으로 쓰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. 하지만 자동차 화물은 없다.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. 당장 우리 울산항만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다른 항만이나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과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.
- 하역은 선박 도면을 보고 하는데 선박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.
- 이때 차량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임의의 도형을 그린다. 또한 차머리가 어느 쪽을 향해 실려있는지 화살표로 표시를 해준다.
- 하역사가 원하는 것은 자동차 화물이 배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 지 알면 좋을 것 같다.
- 현재는 양끝의 차량의 차대번호 뒷 세 자리수를 표시 해놓고 있다.
-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차량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.
- 현재 일본은 카메라가 선박에 차량이 실리고 내리는 것을 촬영해 파악하고 있다.
-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없어서 차량이 수리가 필요해 다시 공장으로 가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.
- 이때 선박이 항만에 오래 머물어 생기는 연체료는 선사가 피해를 본다.
- 화주가 선사보다 막강하기 때문에 화주가 잘못해도 선사가 피해를 본다.
- 화주 또한 현재 차량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.
- 선박 내에서는 무전기 사용도 가능하다.
- 현재 '아반테'가 '엘란트라'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임의로 정한 이름이다.